

## 필리핀 영어의 사회적 배경과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김대용(金大容)\*\*

### 논문 요약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영어 공용어화론이 다시 힘을 입고 있다. 영어 공용어론자의 논지는 세계화 시대에는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 언어인 영어를 공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영어 공용어화 논쟁과 영어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필리핀 영어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 보았다. 영어는 필리핀의 모국어가 아니지만 필리핀 정부가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세 번째 큰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영어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필리핀이 영어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교육적으로는 학교교육에서 영어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필리핀 사회가 식민주의자들이 강요했던 식민지 중주국의 언어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좋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영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모국어보다 영어를 중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필리핀 영어에 대한 고찰은 민족 정체성 문제는 물론 우리의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 주요어 : 모국어, 민족 정체성, 세계화, 식민지적 심성, 공용어, 영어교육, 필리핀 영어

\* 이 논문은 2005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 I. 머리말

1997년 IMF의 재정 지원을 받은 직후 제기되었던 영어 공용어화론이 최근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2005년 10월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들 지역의 일부 초·중등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만 가르치는 수업 방식이 시범 실시된다. 정부 차원에서 영어 공용어화를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겨레, 2005년 10월 21일).

영어 공용어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비교적 간단하다. 즉 세계화 시대에는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 언어인 영어를 공용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인터넷 상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56개국이며, 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스리랑카·싱가포르·인도·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필리핀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공용어화 반대론자들은 문화의 근본 원천인 모국어가 위축되면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의 발달은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민족 정체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영어 사용 능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영어 공용어화로 인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계층적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민현식, 2000: 35-36).

이 글에서는 영어 공용어화 논쟁과 영어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필리핀 영어<sup>1)</sup>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는 필리핀의 모국어가 아니지만 필리핀 정부가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세 번째 큰 국가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영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http://www.gov.ph/aboutphil/general.asp>). 이 때문에 최근 영어를 공부하려는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영어 연수지로서 필리핀을 선택하고 있다. 2006년 3월 경남대학교가 필리핀 국립대학교 라스바뇨스(UPLB)에 해외영어연수원을 개원한 것과 YBM과 SDA 삼육어학원 등 국내 유수의 외국어학원이 필리핀에 어학원을 설립하거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매일경제신문, 2006년 1월 17일; 조선일보, 2006년 3월 8일).

1) 이 글에서 필리핀 영어라는 용어는 영어가 모국어인 필리핀 사회에서 필리핀인들이 사용하는 영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영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영어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필리핀인들이 사용하는 영어가 발음, 액센트, 억양 등은 물론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국가의 영어와 적지 않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리핀 영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영어 공용어화론의 쟁점인 모국어가 아닌 국가에서 영어를 공용어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민족 정체성과 민족 문화의 문제는 물론 영어와 국가 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영어교육 정책을 되돌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필리핀의 학교교육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한다. 필리핀인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학교교육에서 영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핀 영어의 강점을 학교교육에서만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필리핀 영어의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려고 하며, 세 번째로는 필리핀 영어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다루려고 한다.

## II. 필리핀 학교교육에서 영어의 지위

현재 필리핀의 공용어(Official Language)는 필리피노어(Filipino)와 영어이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한 직후 필리핀인들에게 영어를 부과하면서 영어는 필리핀의 유일한 공용어가 되었다. 스페인 식민지 시기(1565-1898) 스페인어는 공용어는 아니었다. 스페인은 또 다른 식민지였던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스페인어 사용을 강요한 반면 필리핀에서는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필리핀인의 고유 언어인 따갈로그어(Tagalog)<sup>2)</sup>로 천주교를 보급하는 등 스페인어 사용을 강요하지 않았다. 한 스페인 선교사는 1610년에 “Arte y reglas de la lengua tagala”라고 명명된 최초의 따갈로그어 문법책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따갈로그어가 스페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많은 필리핀인들은 라틴어 알파벳과 스페인어에 쉽게 동화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필리피노어는 라틴어 알파벳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스페인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단어들도 5,000여개에 달한다(Zaide, 1999: 126-127).

스페인과 달리 미국은 영어를 보급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대부분의 식민지 종주국이 동화정책의 핵심으로 언어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미국도 필리핀에 영어를 강요하였다.<sup>3)</sup>

- 2) 현재 필리핀 국어의 정확한 명칭은 따갈로그어(Tagalog)가 아니라 필리피노어(Filipino)이다. Agoncillo(1990: 552)에 의하면 필리피노로 국어의 명칭이 바뀐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따갈로그어 사용 확산을 반대하는 반따갈로그어 집단의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서 따갈로그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필리핀 교육부가 교육책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 서구적으로 편향된 의식을 가진 적지 않은 필리핀인들은 따갈로그어가 아직 제대로 발전된 언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용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 3)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식민정책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드러웠다. 미국은 통치 초기부터 자치를 약속하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이다. 미국이 필리핀의 자치화 정책을 추진한 데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과 필리핀간의 전쟁(1899. 2-1902. 4)을 비롯한 필리핀인

1898년 5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후 며칠 뒤 미국은 Corregidor섬에 첫 번째 대중교육기관을 개설하였으며(Zaide, 1999: 303), 1898년 8월 Manila를 점령한 후에는 바로 7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안정을 회복하면서 더 많은 학교들을 수립하였다.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등록은 강제적이었으며,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책, 연필 등을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1901년 1월에는 영어를 수업 언어로 사용하는 무상의 초등교육 실시, 필리핀인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 설립, 미국인 교사의 초빙 등을 명시한 학교교육 기본법을 만들었다. 이 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01년 8월 미국의 군 수송선인 Thomas호가 미국으로부터 600여 명의 미국인 교사를 싣고 필리핀에 도착하였다. 미국 문화의 전수자들이었던 이들을 토마스 선단원 'Thomasites'이라고 부른다(권오신, 2000: 127-128과 248-249).

미국이 설립한 학교는 영어를 보급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sup>4)</sup> 1904년에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에는 따갈로그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Andres & Francisco, 1989: 17). 이들 학교에서 필리핀 아이들은 미국 노래를 부르고, 미국 시를 읽고, 미국의 역사와 문학을 공부하였다. 학교교육을 통해 영어는 필리핀에서 공용어와 대중들의 일상 언어(Common Language)로 변모되었다(Zaide, 1999: 303-305). 또한 미국은 필리핀 엘리트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903년부터 정부 재정으로 필리핀 학생들을 미국에 유학시켰다. 국비유학생은 1903년 100명, 1904년 43명, 1905년 36명이 파견되었다. 국비유학생 제도는 1차 세계대전 등으로 인해 중단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식민 지배 기간 동안 꾸준히 유지되었다(권오신, 2000: 131). 이렇듯이 미국이 주도한 학교교육을 통해 필리핀인의 민족정신은 약화되고, 필리핀인의 미국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sup>5)</sup>

영어가 확산되면서 무시되었던 따갈로그어는 1937년에 국어로 선언되었다. 필리핀의 자치를 허용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1935년 9월 선거에서 승리하였던 Quezon은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그는 국어(National Language)가 민족적 단결과 정체성을 배양하

의 독립운동, 둘째는 미국 농민 및 노동자들이 생존권적 차원에서 전개했던 필리핀 지배에 대한 반대, 셋째는 필리핀의 독립을 정강으로 삼은 민주당의 집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인도주의나 정의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온건한 동화정책은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 즉 자치주의를 원리로 한 국제법을 매개로 하여 국제 사회를 조직할 경우 미국의 안전은 확고하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최정수, 2004).

4) 스페인이 필리핀에서 패망하던 1898년에 전체 학교 수는 2,150개, 학생 수는 20만 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35년에는 1백 22십만 명이 다니고 있었던 공립학교 7,330개교와 10만 명 정도의 학생을 가진 약 400개의 사립학교가 있었다(Zaide, 1999: 130과 304).

5) 미국의 온건한 자치주의 정책의 목표는 '미국시민 만들기'가 아니라 '미국인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필리핀인 만들기'였다. 학교가 이러한 정치원리를 교육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구였다면 3권 분립제도와 선거는 이를 실습하는 기구였다. 필리핀 지배를 위한 법률을 만들 때 미국이 그들 헌법의 원리, 특히 3권 분립과 인권 조항에 기초를 둔 것은 온건한 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최정수, 2004: 215).

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에 따라 필리핀 의회는 1936년 11월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지방 언어에 기초를 둔 서민들의 언어를 발전시키고 국어로 채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언어연구소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37년 9월 이 연구소는 수도인 마닐라와 그 인근 지방의 지방 언어인 따갈로그어를 국어의 기반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Quezon 대통령은 그 해 12월 따갈로그어에 근거한 언어를 국어라고 선언하였다. 1940년 4월에는 국립언어연구소에서 만든 따갈로그어 사전과 문법책의 출판이 허가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필리핀의 모든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졌다(Agoncillo, 1990: 361). 필리핀이 독립하던 날인 1946년 7월 4일 필리핀 의회는 따갈로그어를 공용어의 하나로 선포하였다.

필리핀에는 따갈로그어 외에도 Cebuano, Ilocano, Hiligaynon or Ilonggo, Bicol, Waray, Pampango, 그리고 Pangasinense 등 7개의 주요한 방언이 있으며, 더 세분화하면 500개 이상의 방언을 사용하는 76개 내지 78개 정도의 주요한 언어 그룹 등이 존재하고 있다 (<http://www.gov.ph/aboutphil/general.asp>). 이러한 다양한 지방 언어는 한편으로는 필리핀이 7,107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에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필리핀 정부가 국어를 통일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과는 관련이 있다. 1986년 2월 혁명 이후 탄생한 Aquino 정부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서 필리피노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사회과학을 가르칠 때는 필리피노어를, 그리고 수학과 과학 등의 과목을 가르칠 때는 영어를 각각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에서도 필리피노어를 교수 용어로 한 강좌와 저술활동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영어와 함께 각 지방의 언어 대신 필리피노어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유석춘, 1994: 116). 그러나 최근 Estrada 행정부는 교수 용어로 영어 외에 그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방의 언어, 즉 따갈로그어, 일로카노어 그리고 세부아노어 등의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6)</sup>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공립학교의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다(Javer, Costales & Rivas, 2002: 245).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지방 언어들은 같은 단어라도 지역에 따라 사용되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것은 최근 필리핀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모두 영어로 실시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6) 언어의 통일은 근대 국가의 중요한 속성이다. Kautsky가 지적했듯이 민족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언어의 통일 또는 통일된 언어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언어는 한 민족을 결속시키고 그를 다른 민족과 오인의 여지없이 구별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민족국가는 상이한 소수 민족들이 국가 내에서 수적(數的), 경제적, 정치적 힘이 우세한 언어 공동체에 의해 성공적으로 동화됨으로써 가능하였다. 민족국가에서 언어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교류 수단인 동시에 민족 정서와 민족 고유성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는 결정적 요소이며, 학교는 언어를 통일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박호성, 1992: 33-35).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에서 지방 언어의 사용을 허용한 필리핀의 언어 정책은 언어를 통일시키려는 근대국가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이러한 법안의 심의는 필리피노어 사용이 필리핀들 다수가 자기 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리피노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방 출신 응시자에게 불공평한 반면 영어는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나온 것이다(코리아 포스트, 2005년 11월 18일).

이렇듯이 필리핀 정부는 1946년 해방된 이후에도 영어와 필리피노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필리핀의 학교에서 영어는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다. 필리핀의 학교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전 단계로서 보육원(Nursery)과 유치원(Kindergarten),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 대학교육 4년이 그것이다. 그러나 7년으로 구성된 사립 초등학교도 있으며, 대학도 의학이나 법과 대학과 같이 특정한 분야는 5년에서 8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원이나 유치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과목도 영어지만 여기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싶다. 그것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에 따라 교과과정 구성에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필리핀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교육부의 홈 페이지에 의거하면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영어, 과학(Science and Health), 필리피노어, Edukasyong Pangtahanan at Pangkabuhayan(가정경제), 수학, Makabayan(역사인물 및 역사) 그리고 Edukasyong Pagpapakatao(예절)이다.

이러한 7과목 중 영어 수업의 할당 시간이 가장 많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영어는 각각 하루 100분씩 즉, 주당 500분, 그리고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각각 80분씩, 주당 400분을 할당하고 있다. 고학년에서 영어 할당 시간이 줄어든 것은 기본적인 해독(literacy) 능력이 저학년에서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필리피노어와 수학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각각 하루 80분,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각각 하루 60분이 할당되어 있으며, 과학은 2학년까지는 수업이 없는 반면 3학년에서 하루 40분씩,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각각 하루 60분을 할당하고 있다. 할당된 수업 시간을 보면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http://www.deped.gov.ph/updates/updateslinks.asp?id=22>).

또한 필리핀 국립대학이나 아테네오, 라살 등과 같은 명문 대학에서는 외국인이 입학할 때 토플 500-550점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우수한 영어실력은 명문대 진학의 필수 조건이다. 필리핀에서도 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명문대 진학을 선호하고 있다. 한 예로 필리핀 국립대학에 가까우면서 아테네오 대학에 인접한 Katipunan 거리에는 적지 않은 사설 입시학원들이 밀집해 있으며, 그 교육비는 그들의 국민소득에 비추어 보면 매우 높다. 이들 사설 입시학원들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학원에서도 영어는 그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이 필리핀에서 영어는 가장 중요한 교과목일 뿐 아니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교수 용어이다. 특히 대학에서의 모든 수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영

어로만 진행되고 있다. Anders와 Ilada-Andres(1987: 71)는 필리핀에서 영어에의 의존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 필리피노어의 한계,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언어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필리핀인들은 따갈로그어화된 영어(Taglish) 내지 영어화된 따갈로그어(Engalog)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식으로 분류한다면 필리핀 영어는 일로카노 영어, 팜팡고 영어, 와레이 와레이 영어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Anders & Ilada-Andres, 1987: 71).

### III. 필리핀 영어의 사회적 배경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세 번째 큰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교과이고, 또 가장 중요한 교수 용어이기 때문에 필리핀인들의 영어 실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월등하다. 외국에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인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극히 어려운 반면 필리핀인들은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필리핀인들 중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인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많이 찾는 영화관에서는 필리핀인들이 만든 몇 편의 영화를 제외하고는 영어 대사를 가진 영화들이 필리피노어 자막 없이 그대로 상영되고 있으며, 많은 필리핀 가수들도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마닐라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들은 대부분 영어로 간행되고 있으며, 타블로이드판을 발간하는 몇몇 소규모 신문사들만이 필리피노어와 지방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서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적도 대부분 영어로 출간된 것이어서 필리피노어만을 사용한 서적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한 예를 들면 필리핀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하이틴 소설은 영어와 필리피노어를 함께 혼용하고 있다. Aquino 행정부에서 필리피노어 사용을 권장하고, 필리핀 하층민의 정서에 호소했던 Estrada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필리피노어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영어만을 사용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필리피노어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는 출연자들이 적지 않다. 외국, 특히 미국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는 케이블 TV의 경우도 아무런 자막이나 설명 없이 영어로만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

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에도 필리피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어만을 사용한다.

이렇듯이 모국어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회에 영어가 만연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랜 세월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 사회가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별반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필리핀이라는 국가 명칭은 식민 지배의 산물이다. 1521년 Cebu에 도착하였던 마젤란(F. Magelan)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필리핀 군도를 탐험하였던 스페인 원정대의 일원이었던 로페즈(Ruy Lopez de Villalobos)는 1543년 Samar섬과 Leyte섬에 도착하여 당시 스페인의 왕자였던 Philip II세의 이름인 'Felipe'을 따서 필리핀 군도를 'Felipinas' 또는 'Filipnas'라고 명명하였다. 그 이전에는 필리핀 군도를 하나로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이 없었다. 이러한 명칭은 미국의 지배 하에서 'Philippine Islands'로 영어화되었다가 1946년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Republic of the Philippines'로 바뀌었다(Zaide, 1999: 4).

약 400년간 필리핀을 지배했던 스페인과 미국은 효율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전통을 추종하는 세력을 사회적 엘리트로 양성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서구적인 것을 찬미하는 한편 필리핀적인 것을 무시하는 식민지적 심성을 갖고 있다. 식민지 시기에 양성된 엘리트의 후예들은 현재도 여전히 필리핀의 지배세력으로 남아 있으며, 이들은 식민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았다.<sup>7)</sup>

이러한 경향은 필리핀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8)</sup> 여러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역사 교과서로 이용하고 있는 Zaide의 저서에는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지배의 폐해가 거의 지적되고 있지 않다. 한 예로 Zaide(1999: 135)는 스페인인과 필리핀인간의 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스페인인과 필리핀인간의 결혼은 필리핀의 인종적 혈통을 증진

7) 필리핀에서는 1986년 2월 '민중의 힘'으로 20여 년간의 Marcos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종식시키고, Aquino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복원된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대중들의 바람과는 달리 과거 '엘리트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1972년 계엄령 선포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전통적인 지배 가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Aquino의 집권과 함께 다시 전면에 등장하였기 때문이다(서경교, 2005: 1-2).

8) 필리핀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2월 혁명 이후 개정된 1987년 헌법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함양하고, 인간애를 고양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역사 발전을 위한 민족적 영웅의 역할에 감사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고, 윤리적·정신적 가치를 강화하고, 도덕성과 개인 규율을 개발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고무하며, 과학적이고 기술적 지식을 넓히고 직업 능력을 진작시키는 것이다.”(김민정, 2003: 50-51). 그러나 필리핀인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역사 교과서에서 외세의 지배에 대한 서술은 이중적이거나 모호한 태도를 띠고 있고 있으며, 미국의 지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방해한 악역을 수행하였지만 필리핀의 정치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계몽적인 영향을 미쳤고, 필리핀에게 독립을 약속하였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김민정, 2003: 42). 오랜 세월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에서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가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민지 시대를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식민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켰다. 그들의 스페인 혈통과 스페인화 된 정신성 때문에 필리핀인들은 종교적 헌신, 존경, 로맨티즘, 가족에 대한 충성과 좋은 관습 등 훌륭한 스페인적인 특성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필리핀 메스티조들은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지배에 대한 기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의 지배 밑에서 필리핀인들은 점차적으로 민주주의 안에서 훈련되었으며, 독립을 준비하였다. 필리핀인들은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연주하고, 민족적 영웅들을 기념하고, 언론과 출판, 종교, 결사와 청원의 자유를 향유하였다.”(Zaide, 1999: 311; 밑줄은 글쓴이의 강조)

한 교육학자(Lardizabal, 1991: 3)는 미국이 필리핀에 교육을 전수한 것을 입이 당도록 찬미한다. 그는 초기에 필리핀에 도착했던 미국인 교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음식과 딱딱한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했으며, 그들의 일의 즐거움을 훼손하는 불편함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 콜레라와 천연두 속에서 그들의 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교사로서뿐 아니라 건강관리자, 생활지도자, 평화의 수호자와 만물박사로서 끊임없이 일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는 미국은 자비로운 국가로서 필리핀을 지배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현재까지 필리핀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식민지적 폐해의 극복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sup>9)</sup>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상원의장이었던 Tolentino는 1966년 10월 필리핀 교육계의 지도자들에게 교육제도가 젊은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으며, 영어를 더 이상 교수 용어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영어를 교수 용어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든지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낫다는 열등의식을 낳는 주요한 원인이었다(Agoncillo, 1990: 547 쪽에서 재인용).

필리핀인들이 대체로 영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식민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식민 지배의 결과는 필리핀적인 것보다는 서구의 문화를 중시하는 식민지적 지식인을 발생시켰으며, 이들과 그 후예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중시하는 반면 자신들의 그것을 무시하고

9) 현재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도 상호 대등한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상호주권국가 관계이지만 실제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2차대전 때 일본의 필리핀 침략으로 입은 엄청난 손실 때문에 자국 안보, 전후 복구, 경제 재건 등을 위해 필리핀은 다시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정치·경제·국가 안보 등의 측면에서 필리핀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현재도 필리핀 정부는 Mindanao섬의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6년 2월 발생한 Leyte섬에서의 산사태 때에도 필리핀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배치한 6,000명의 병력과 수송기 등을 지원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산사태 이후 발생한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 등 정국이 극히 불안하였을 때도 미국의 지지는 정치적 난국을 해소하는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필리핀을 지원하는 대신 필리핀으로부터 미군 기지를 확장하고 개발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있다. 이러한 결과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적지 않은 필리핀인들은 자신들이 필리핀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때는 혼란스러워진다(김성건 외, 2002: 209). 필리핀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체로 '토착문화가 없는 나라' 또는 '미국화 된 아시아국가'라고 평가되고 있다.

필리핀 사회가 이러한 식민지적 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필리피노어는 언어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무시될 것이며,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식민지 종주국의 언어였던 영어는 가장 선진적인 언어로 평가받으며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에서 널리 통용될 것이다. 필리핀이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스페인과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식과 교육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차원의 민족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IV. 필리핀 영어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 현재 영어는 좋은 대학 진학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직장 사회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 토익 등의 영어점수 보다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한국일보, 2006년 3월 20일). 또 화이트 칼라 노동자는 영어 실력에 따라 몸값이 평균 30-40% 가량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한국일보, 2006년 3월 5일). 대학에서도 이러한 사회추세를 반영하여 신규 교수를 채용할 때 전공에 관계없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한국일보, 2006년 3월 5일).

영어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를 반영하여 최근 한국일보사는 '영어가 권력이다'는 시리즈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한 마디로 말해 영어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영어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돈을 정밀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한국일보사에 의하면 매년 최소 10조원 이상의 돈이 투자된다고 하며, 영어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 각종 어학원,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이어지는 영어 조기교육 코스를 밟으려면 1명당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한국일보, 2006년 3월 6일). 결국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자녀들의 영어 실력에 영향을 주고, 영어 실력의 격차가 다시 빈부 격차를 낳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에게 일종의 원죄로 작용하고 있다. 영어에 대

한 열망은 높은 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도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매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영어교재와 교수법에 관한 광고 등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기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과학적이고 우수한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커졌다.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하던 정부는 1997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뒤이어 외환 부족으로 인해 IMF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팔리고, 또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였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와 기업들은 영어를 더욱 강조하였다. 한 마디로 말해 영어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도 영어가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sup>10)</sup>

영어는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는 영어를 잘해야 하며, 또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실 영어를 잘 하게 만드는 방안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일부 영어 공영어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우리말을 없애고, 영어를 공용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즉 필리핀과 같이 학교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일상생활에서 영어에 접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영어 공영어화론자들이 영어 사용 능력을 국가 경쟁력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영어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도약하여야 하며, 영어 중주국인 영국은 IMF의 구제 금융을 받지 않았어야 했다.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은 1960년대에는 '제2의 일본'으로 불리었던 아시아의 용이었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에 가난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리, 크롬, 금 등을 비롯하여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으며, 따뜻한 날씨와 토양으로 3모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현재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40달러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다. 전체 인구의 38%가 필리핀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인 연간소득 220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실업률도 30% 가까이 되는 등 필리핀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문화일보, 2006년 4월 7일). 반면 영어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

10)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국민 상당수는 영어 공용어화를 찬성하고 있다. 1999년 11월 EBS가 영어 공용어를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였을 때 EBS는 우리 국민의 62.4%가 영어 공용화를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00년 12월 주간조선이 3,55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 조사에서는 52.95%가 영어 공용어를 지지한 반면 41.27%는 반대하였다(민현식, 2000: 29).

에 있는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나 최근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어 능력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언어의 힘은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가 영어를 중시하는 것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이기 때문이며, 최근 많은 고등학생들이 독일어와 프랑스어 대신 중국어를 선택하는 것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반영하여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홍콩 등을 포함한 중화권에서는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동베이(東北)3성과 산둥(山東)성 등에는 이미 30여개 대학에 한국어과가 설치되었으며, 한국어과 경쟁률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헤럴드경제, 2006년 1월 27일). 심지어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옌벤에서는 옌지시 정부가 2006년 모든 한족 공무원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것을 지시하였으며, 한국어 실력을 공무원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고 발표하였다(국민일보, 2006년 4월 14일). 이러한 추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경영자들도 늘어나고 있다(한겨레, 2006년 4월 15일).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많은 한국인들은 민족 정체성의 원천인 한국어를 무시하면서 영어 학습에 몰두하고 있다. 영어 학습에 대한 열풍은 우리의 언어체계를 허물고 있으며, 우리에게 식민지적 심성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심어 놓고 있다. 최근 두음법칙을 무시하고 'ㄹ'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과 영어 이름을 갖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59%가 영어 이름을 갖고 있었으며, 그 대부분이 20대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20대 68%, 30대 70%가 영어 이름을 갖고 있었다. 조사자에 의하면 이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 영어가 우리말과 한자어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한국일보, 2006년 3월 5일).

한국인에게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이름을 매우 중히 여기어 남자가 성인이 되어야 관례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이름(冠名)을 지어 본명으로 삼고, 호적이나 족보에 실었다. 최근 변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대부 집안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지을 때 항렬에 따라 짓기 때문에 이름만으로도 혈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 작명소를 찾는다. 이것은 이름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듯이 한국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 대신 영어 이름 갖기를 선호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민족 정체성

을 부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영어 공용어화론은 언어 제국주의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교육에서 영어를 교수 용어로 배우고, 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필리핀이 식민지적 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필리핀인보다 오히려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 필리핀 인류학자(Pertierra, 1997: 3-4; 김성건 외 4인, 2002: 207-208에서 재인용)는 필리핀의 미국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즐거웠다. 언론에서는 영어가 판을 친다. 팝 뮤직은 미국 것이거나 미국 팝 뮤직에 의해 영감을 얻은 것이다. 미국제라면 어떤 것이든지 위세를 갖게 되며, 국산보다 선호되어 ‘우리의 식민지적 심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나게 만든다. 라디오 아나운서는 가능한 한 미국인처럼 발음하려고 노력한다. TV는 미국산 쇼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다양한 형태로 색슨화되어 Manuel은 Manny로, Claro는 Clack으로, Juan은 John으로, Gregorio는 Greg로, Olivia는 Olive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 이렇듯이 문화의 원천인 모국어를 무시하고,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는 일시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며, 정체성을 상실한 국가는 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아마도 민족 정체성의 혼란이 현재 필리핀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변화하고, 교역의 필요성이 현재보다 급증한다고 해도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영어가 필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인이면서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미국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에게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면서 그들의 문화 및 역사의 담지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한국인에게 있어서 영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어를 배우기 전에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하는 기본적인이고 단순한 문제에 대해 먼저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왜’에 대한 질문 없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야 한다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렸다. 유창한 영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낳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한국인에게 영어를 잘할 것을 강요하기 보다는 영어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영어와 우리말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영어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대학도 시류에 편승하여 무조건적으로 영어를 중시하는 풍토를 지양하고, 지성의 전당답게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에게 필요하고

바람직한 영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도 채용해야 할 인재들을 선발하면서 영어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기업에서 선발하여야 할 인재들이 모두 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등에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 V. 맺음말

언어는 민족의 정신적 표현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 지배를 하면서 피지배민족의 언어를 부정하는 대신 자신들의 언어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언어정책은 궁극적으로는 피지배민족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식민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리핀은 근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결과 아직도 적지 않은 필리핀인들이 식민지적 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필리핀이 모국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교과목으로 중시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의 물결이 본격화하면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으며, 정부는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를 선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은 영어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필리핀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좋은 관광지를 갖고 있으며, 또 영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국가이다. 1960년대 '제2의 일본'으로 불리었던 필리핀은 현재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필리핀인들은 영어 사용으로 인해 민족 정체성에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 이것은 영어 공용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영어가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민족 정체성의 혼란이 국가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분석한 필리핀 사례는 하나의 예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에서 영어를 공용어화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민족 정체성과 민족 문화의 문제는 물론 영어와 국가 경쟁력과의 관계와 우리의 영어교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다른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오신(2000). 미국의 제국주의: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민정(2003). 일본점령기에 대한 필리핀의 역사인식: 필리핀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45. 41-70
- 김성건 외 4인(2002). 정체성 위기와 서구 대중문화의 수용: 타이완과 필리핀의 사례 비교. 동남아시아연구. 12(1). 181-228
- 민현식(2000). 공용어론과 언어정책. 이중언어학. 17. 27-55
- 박호성(1992). 유럽 근대민족 형성에 관한 시론. 역사비평. 19. 26-45
- 서경교(2005). 필리핀의 민주주의: 민주화 과정을 통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15(1). 1-39
- 석춘(1994). 필리핀의 사회제도: 가족, 종교, 교육. 동남아시아연구. 3. 91-126
- 최정수(2004). 미국이 필리핀 지배전략과 자치화정책. 강만길 외(2004). 일본과 미국의 식민통치 비교. 서울: 선인. 181-216
- Agoncillo, T. A.(1990). *History of the Filipino People(Eighth Edition)*. Quezon City: Garotech Publishing
- Anders, T. D & Ilada-Andres, P. B.(1987). *Understanding the Filipino*. Quezon City: New Day Publishers
- Andres, T. Q. D. & Francisco, F. Y.(1989). *Curriculum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 Setting*. Mandaluyong City: National Book Store
- Javer, J. D. & Costales, R. D. & Rivas, D. C.(2002). *Introductory Sociology and Anthropology A Pedagogy*, Manila: Rex Book Store
- Lardizabal, A. S.(1991). *Pioneer American Teachers and Philippine Education*. Quezon City: Phoenix Publishing House
- Pertierra, R.(1997). *Explorations in Social Theory and Philippines Ethnography*.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Zaide, S. M.(1999). *The Philippines - A Unique Nation(Second Edition)*. Quezon City: All-Nations Publishing Co.
- <http://www.deped.gov.ph/>
- <http://www.gov.ph/>

\* 논문접수 2006년 5월 10일 / 1차 심사 2006년 5월 30일 / 2차 심사 2006년 6월 5일

\* 김대용: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조선초기 교육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초기 교육의 사회사적 연구" 등이 있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e-mail: kimdae@chungbuk.ac.kr



## Abstract

## A Study on the Social Background of Philippine English: Its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Kim, Dae Yong\*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educational and social background of Philippine English in order to cope with the opinion that English must be new official language in Korea. This insistence is almost based on economic reason. Some people take up the position that there is unlimited struggl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we should speak English as a official language because English is a world language.

The Philippines government says the Philippines is the third largest English-speaking country in the world. Even though English is not their native language, many Filipinos can speak English fluently.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English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in schooling, it depends on her social background that many Filipinos still have the colonial mentality until now because the Philippines has not gotten out of the colonial domination completely. Language is not a single instrument of communication but the accumulation of culture and nationality. English is the basic cause that many Filipinos are in utter confusion in the aspect of national identity.

We can receive the implications through the Philippines that English is not the driving force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hilippines has so many English-speaking people, what is more, she ha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many wonderful tourist attractions. But she is a very poor country and it is difficult to say how her future will turn out. We are currently emphasizing English, then again we are more and more ignoring our Mother tongue. This paper suggests that we should reexamine a subject of national identity in connection with our English language teaching.

Key words: Colonial Mentality, English Language Teaching, Globalization, National Identity, the Mother Tongue, an Official Language, Philippine English

---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